

정보 추세,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정보, 재정투자가 지향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과정보들이 망라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웹기반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재정다이아몬드와 같은 도식을 통해 상호 비교정보로 가공·제시되어야 한다.

재정평가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재정분석제도가 정보공시에 따른 간접관리 장치라면 재정평가제도는 재정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초점과 시각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장치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경우 재정운영에서의 사전적 통제를 대체하는 대신 사후적인 결과조치가 강화하기 때문에 분권형 자율재정과 성과지향적 책임재정의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그런데, 재정분석과 성과공시, 그리고 재정평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수직적인 간접관리수단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서 지자체와 갈등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도의 설계 초기부터 지자체의 참여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재정분석에서 제공하는 현장정보들은 자치단체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개를 선호하지 않는 정보도 있으며 생산하기 힘든 정보도 있다. 따라서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

어야 한다.

재정분석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강제 때문에 운용되는 수직적 관리 장치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창고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재정평가에서는 재정지표개발과 점수화방식에서 지자체와 합의가 중요하다. 측정지표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비교평가를 위한 지자체 유형화 작업에서도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재정분석과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재정운영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재정성과정보의 공개를 통해 지자체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지역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재정관리 협력체계로서 지역사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정섭. (1996). 「지방재정지표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 외. (2003). 「2002년도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 및 제도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 윤영진. (1998). 지방재정 진단모형의 이론적 동향. 「지방재정학보」, 3(1).
- 윤영진 외. (2004).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 재정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행정자치부.